

• 시론 •

글로벌화는 삶의 조건

김형순/로커스 대표

이제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세계는 우리 삶의 무대가 되었다. 현실을 바로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적인 요청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현실 중의 하나가 글로벌화이다.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리적 제약과 국경선이 점차로 무의미해지고 있다.

글로벌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졌던 삶의 조건이 되었다. 벤처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고수익을 창출하려는 모험적인 기업가정신이 이 시대에 맞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실제로 벤처는 신경제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임이 미국의 90년대 경제와 우리의 IMF위기 이후의 경제 상황에서 분명히 입증됐다.

현 정부가 핵심 국가경제전략으로 벤처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 결과로 구경제에서는 서구 세계에 뒤졌지만 신경제에서는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략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민족네트워크 활용이라는 기능성의 측면이 존재한다. 이미 이스라엘과 대만 등이 이러한 모델의 선구자로서 매우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벤처의 글로벌 전략을 실현하고 더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절실하다. 디지털 신경제의 핵심적 인프라가 되면서 동시에 논리가 되는 개념이 바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피터 드러커가 기업가정신이 가장 탁월한 민족이라고 예찬한 우리의 기업가들이 서로 뭉쳐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면 글로벌 시대의 조건에서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같거나 또는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이다.

앞으로 벤처기업들은 더 좋은 기술과 인재를 개발할 자본과 장을 마련하고 높은 수익성을 보증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주요뉴스 •

벤처확인제 강화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개정된 벤처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업체 가운데 '연구개발 기업'은 연간 R&D 비용이 업종별로 총 매출액의 5~10% 이상, 최소 5천만원 등 두 조건을 함께 충족시켜야 한다.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요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전부터 요청일까지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금액으로 보유해야 하며 '신기술 기업'은 특허권 등 신기술이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벤처투자기업은 1년, 기타 기업은 2년으로 제한되고 벤처기업확인 취소제도가 도입되는 등 벤처기업의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한편, 벤처기업확인신청 창구는 민간 벤처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벤처넷(www.venturenet.or.kr)'으로 일원화 됐다.

중기청, 中企 신규시장 개척지원

내년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중기청은 내년에 중국, 그리스 등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으로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모두 100회 이상 보내는 등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성과가 우수하고,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등에 대한 지원확대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내년에는 올해 65회 보다 크게 늘어난 100여회의 해외전시회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이 파견을 지원하는 무역투자촉진단은 중소기업 관련 조합이나 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업체당 비용도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전시회의 경우 2개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전시물품 운송료 등을 지원한다.